

#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김민재와 만남 매우 긍정적”

“김민재와 많은 대화 나눠…다음 A매치 기대”

6월 A매치 앞뒤 “최대한 많은 선수 관찰할 것”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김민재(나폴리)를 포함한 유럽파들과의 만남에 대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달 초 미국으로 출국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14일 유럽으로 건너가 손흥민(토트넘), 김민재, 오현규(셀틱),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과 만났다.

클린스만 감독은 “열흘 동안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른 코치들과 함께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했고, 소속팀 감독들과도 만났다”며 “시간상 모든 선수를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차츰 만남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와의 면담은 클린스만 감독의 이번 유럽 출장 최대 이슈였다.

김민재는 지난달 우루과이와 A매치에서 패한 뒤 취재진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줬다.

또 대표팀 선배들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김민재가 해명해 나서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대표팀 운영을 위해선 클린스만 감독이 관련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긍정적이었다. 감독과 코치가 찾아온 것에 고마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김민재의 경우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못 나갔지만 덕분에 여유 있게 만나 나폴리 인근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재는 누구도 상상 못 할 환경에서 뛰고 있다. 골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컵을 들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다음 A매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만남이 김민재에게 도움이 됐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뛰는 선수들의 심리와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경기에 뛰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며 “오현규의 경우 셀틱에서 많은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좋은 팀 안에서 배고픔과 싸우려는 투쟁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성(마인츠)은 바이에른 뮌헨이란 빅클럽을 이기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에서 출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지만, 감독과 협회가 같이 한다는 걸 선수

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협회와 함께 계속해서 선수들의 상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 출장 기간 손흥민의 소속팀이자 자신이 현역 시절 전성기를 보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홈구장을 찾기도 했다.

현장에서 손흥민의 EPL 100호골을 지켜본 그는 “손흥민과는 경기 전 대화를 나눴다. 결과가 아쉬웠지만, 골을 넣어 기뻐했다”며 “토트넘의 저의 구단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팀”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뉴캐슬전 1-6 대패가 안타깝다. 손흥민은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감독대행이 경질되고, 또 감독대행이 오는 등 팀이 어수선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해 남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아스톤빌라, 뉴캐슬, 브라이튼 등 EPL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강인(마요르카)에 대해선 “최근 소속팀에서 골도 넣고 좋은 활약을 펼치며 뛰는 것”이라며 “마요르카도 좋은 팀이지만, 큰 구단에서 제안이 온다면 선수로서 기쁠 것”이라고 했다.

UEFA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클린스만 감독은 “상당히 유익한 자리다.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운다”며 “선수들이 유럽에 간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니다. K리그



나 아시아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게 어디든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점검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곧장 전주로 이동해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지켜볼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 추첨식에 참석한다. 이후에는 6월 국내에서 열리는 페루, 엘살바도르와의 A매치 2연전 준비에 돌입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다음 A매치까지 시간이 있다. 명단 발표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경기를 볼 것이다.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차두리 어드바이저, 마이클 김 코치가 K리그를 계속 체크했다”며 “새로운 선수가 올 수 있고,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월드컵도 응원할 것이다.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선수를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창단

복싱팀 창단으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기대



목포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축구, 하키, 육상팀에 이어 복싱팀을 새롭게 창단하고,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식에는 박홍철 시장, 김귀진 목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대 목포시 체

육회장과 체육회 및 복싱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과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복싱 명문 고장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이기 위해 복싱팀을 창

단했다고 밝혔다.

목포 복싱팀은 지난 86아시안게임 당시 금메달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다. 시는 당시 목포를 복싱 명문 고장으로 만든 데 기여한 권현규 선수를 복싱팀 창단 감독으로 영입했다. 또한, 제30회 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라이트헤비급의 김중진 선수, 미들급의 신재식 선수를 선수단으로 구성했다.

새 출발을 알린 복싱팀은 오는 5월 완도에서 개최되는 전남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등에서 메달 사냥을 하게 된다.

앞으로 복싱팀은 대한체육회 주관의 2023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에 선정돼 3년간 2억5천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권현규 감독은 “전국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을 확인하는 전국체전에서 메달권의 성적을 거두 목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홍철 시장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시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최초의 국가 단위의 스포츠 대축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 “우리시 선수단의 선전과 우승기원은 물론, 복싱팀 뿐만 아니라 지역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고진영, LPGA 투어 LA 챔피언십서 시즌 2승 도전

세계 1위 코다·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부도 참가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LA 챔피언십은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워너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 기업 JM 이글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총상금 300만 달러의 대회다.

LPGA 투어에서 총상금 300만 달러 규모는 5개 메이저대회와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 등 정도다.

2018년부터 시작한 LA 오픈과는 다른 대회다. LA 오픈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고진영을 비롯해 한국 골퍼 15명이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지난달 HSBC 월드 챔피언십 2연패로 마수걸이 승리에 성공한 고진영은 시즌 2승을 노린다.



직전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 톱10에 오르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대회가 열리는 서 컨트리클럽에선 2021년 LA 오픈 때 공동 3위에 오른 좋은 추억이 있다. 세계랭킹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김효주도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또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4위에 오른 양희영도 통산 5승 사냥에 나선다.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와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4위로 도약한 베트남계 미국인 릴리아 부도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겨냥한다.

## 드리블·크로스 최상위권…부쩍 성장한 이강인

드리블하면서도 공 없이 달리는 선수들 앞서…드리블·크로스 라리가 최상위권

한국 축구 기대주 이강인(마요르카)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원래 최정상급이었던 키크력과 발제간에 약점으로 지목됐던 주력까지 향상되면서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 24일(한국시간) 헤타페와의 2022-2023시즌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홈경기에서 2골로 마요르카의 3-1 승리를 견인했다.

프로 데뷔 후 첫 멀티골을 넣은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1경기 2골을 넣은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

주목할 장면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70m 단독 드리블에 이은 골이다. 이강인은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주력을 입증했다.

이강인 뒤를 쫓던 헤타페 수비수 다코냐 제네를 비롯해 헤타페 미드필더 루이스 미야는 모두 드리블을 하지 않고 달리기만 집중했음에도 이강인을 따라잡지 못했다.

십자어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 전진하던 이

강인 동료 라이오와 그르니에마저도 이강인보다 느렸다.

일반적으로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공을 터치하는 순간 가속도 등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때문에 수십 미터를 치고 나가다 보면 수비수에게 따라잡혀 단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강인은 페널티박스 안에 진입해 자세를 잡고 슈트를 날릴 때까지도 다코냐 제네에 앞서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득점 시간이 후반 추가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경기 내내 뛰다니며 체력을 소진하고도 경기 종료 직전에 이 같은 질주를 해냈다. 체력과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기존 평가를 불식한 대목이었다.

각종 지표에서도 이강인은 라리가 상위권에 올랐다.

후스코어닷컴에 따르면 드리블 성공 부분에서 이강인은 경기당 2.1회로 베니시우스(3.4



회), 추쿠예체(2.4회), 호드리구(2.3회)에 이어 공동 4위에 올라 있다.

크로스 성공 부문에서도 이강인은 경기당 1.6개로 알레이스 가르시아(2.3개), 호세 가야(1.8개), 굴바우(1.7개)에 이어 공동 4위다.

최우수 선수 선정 횟수에서 이강인은 5회로 그리즈만(8회), 레반도프스키(7회), 다비드 소리아(6회), 미켈 메리노(6회)에 이어 공동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경기력이 지속되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강인의 몸값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뉴시스



## 1-6 참패한 토트넘 선수단, 원정 응원 팬들에 환불 조치

1-6 참패를 당한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원정 응원 팬들에게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토트넘 선수단은 26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의 좌절과 분노를 이해한다”며 “어떤 말로도 상황을 되돌릴 순 없지만, 뉴캐슬 원정 응원에 나섰던 팬들의 입장권을 환불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원정 응원하러 갔던 팬들이 24시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하면, 1주일 안에 환불이 완료된다.

토트넘은 지난 2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1-6으로 크게 졌다. 특히 킥오프 21분 만에 5골을 내주며 큰 충격을 줬다.

손흥민도 이날 선발로 나왔지만, 득점 없이 팀의 완패를 지켜봐야만 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완패 후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대행을 경질했다.